

‘다시 찾고 싶은 목포’... 관광객 2000만 시대 연다

市,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남도음식큰잔치 등 행사 잇따라
고객 중심 서비스 실천 등 다짐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전략 마련

목포시가 관광객 2000만 시대 도약을 위해 관광수용태세 정비에 나섰다.

시는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관광객 수요, 외국인 단체관광 등에 대응하고 하반기 주요 행사·축제에 다녀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2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하반기에 27일~9월 1일 2024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9월 14일 목포해상W쇼, 9월 27~29일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월 11~13일 목포항구축제, 10월 18~20일 목포문화재야행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비한 결의대회에는 목포시 관



목포시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열린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광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 관련사회단체 대표, 여행·식품·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광업계 대표로 대한숙박업중앙회목포시지부 임훈 지부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오선영 운영위원이 결의문

을 낭독하고 관광객을 대하는 목포 관광인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광인의 기본자세 실천을 다짐했다.

다시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를 위해 결의문에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천 △공정한 가격 설정 △철저한 위생관리 △

친절한 고객 응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이종원 여행작가가 여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목포의 모습과 타지역의 수용태세 정비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이 이어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관광객 유입은 우리의 마음가짐, 손님맞이 태도와 정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진 관광자원에 관광객을 위한 진심어린 서비스가 더해져 관광객 2000만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25년 개통 목표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목포역 선상역사 대개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목포역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로 목포유입 관광객또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빗물이용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물 자원 관리

신안군은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신안군 보건소 주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 투입됐으며 규격은 5m×8m×2m로 약 8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해당 시설 빗물은 신안군 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신안군 보건소는 방역 소독에 필요한 물 공급과 조경용수로 활용하며 신안군청,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 압해읍 등에서도 조경용수와 산물 차량 물 급수로 빗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연다 내달 27일까지 감상문 모집

영암군도서관이 ‘제28회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를 열고, 9월27일까지 독후감상문을 모집한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영암군과 전남도립도서관이 선정한 ‘올해의 책’ 8권 중 1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의 책과 제출 서류 목록은 영암군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거나, 영암도서관(061-470-6802)로 문의하면 된다.

시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총 16명을 선발하며 독서왕의 감상문은 ‘제32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 추천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완도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섬마을 경로당 등 114개소

완도군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도서 마을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114개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도서 마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층이 많아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륙이 안된 7개 읍면 중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마을(금일 옹항, 금일 공항, 보길 보옥, 보길 예작 등)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에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을 갖춰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의료 취약지 도서 주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응급 헬기 착륙장 13개소와 인계점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로 65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당부 어패류 익혀 먹기 등

진도군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시기에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을 말한다. 주로 군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에 바닷물이 접촉했을 경우 감염되며 보통 16~24시간의 잠복기를 가진다.

잠복기 후 급작스러운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 증상 후 24시간 내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같은 증상이 발현하며 치사율은 50% 내외에 달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는 5도 이하 저온 보관 △사용한 조리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직영 쇼핑몰 30% 기획 할인 무안군, 다음달 20일까지

무안군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처 ‘맛들무안몰’에서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무안의 황토밭과 청정한 바다가 품어낸 한우, 한돈, 김, 쌀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선물 세트와 추석 특별관의 전 상품을 30% 할인(1인 5매)하며 9월 20일까지 적용된다.

무안 대표농산물인 양파, 마늘 제품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이 1인당 3매 제공되며 신규회원 2000원 쿠폰 지급 및 카카오톡 채널 추가 2000원 쿠폰도 추가로 지급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민이 정성 들여 재배한 농특산물을 알차게 꾸려진 이번 추석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라며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민들이 라탄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행복드림 한방교실’을 운영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난임여성 대상 행복드림 한방교실 성료

무안군이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진행한 ‘2024 행복드림 한방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4 행복드림 한방교실은 임신·출산 환경 조성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혼과 다양한 잠재적 영향으로 인한 난임 여성에게 한의약적 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능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지지로 체계적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한방보건의료와 함께하는 난임 교육 및 건강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나를 이야기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하는 동화 구연 △심

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캘리그라피 무드 등 만들기 △라탄 공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난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김귀선 목포시의회 의원, 반도체팹 호남 유치 공동기구 구성 제안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 달성

목포시의회김귀선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사진)은 26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팹 호남 유치 위한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력 공급 문제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목포·무안·신안이 함께 반도체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대기업의 요구에 맞춘 SOC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무안 반도로 반도체 생산 팹을 이전함으로써, RE100 이행과 지방소멸 극복 등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반도체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는 심각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 특히, 무안반도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